

- 주요 뉴스: 미국, 비농업 고용 예상 상회, 실업률 하락. 고강도 금리인상 지속 전망
 -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, 기준금리 4.5%까지 인상 재차 강조
 - BoE 부총재, 공격적인 통화정책 긴축기조 유지의 필요성 강조
 - 미국 바이든 행정부, 반도체 장비의 對중국 수출 전면 통제 발표
 - 국제금융시장: 미국 9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 연준의 긴축 지속 전망으로 위험회피 강화
주가 하락[-2.8%], 달러화 강세[+0.48%], 금리 상승[+6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양호한 고용지표로 연준의 고강도 긴축 경계감이 작용
유로 Stoxx600지수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전망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강세기조 지속
유로화는 ECB와 Fed의 통화긴축 괴리 확대 우려로 0.5% 하락. 엔화 약세(-0.1%)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 강화 기대 등으로 6bp 상승
독일은 8월 산업생산 감소, 에너지 위기 지속 등으로 10bp 상승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424.30원, +12.6원) 0.9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10/7일	10/6일	전일대비			10/7일	10/6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639.7	3,744.5	-2.80%	국채 금리 10y	미국	3.88	3.82	6bp
	유럽	391.67	396.35	-1.18%		독일	2.19	2.09	10bp
	중국	휴장	휴장			영국	4.17	4.24	7bp
	일본	27,116	27,311	-0.71%	CDS 5y	한국	58	56	2bp
	한국	2,232.8	2,237.9	-0.22%		중국	104	101	3bp
	달러지수	112.80	112.26	0.48%	위험 지표	EMBI+	458.62	452.37	6bp
유로화	0.9744	0.9791	-0.48%	VIX		31.36	30.52	2.75%	
환율	엔화	145.25	145.14	-0.08%		WTI유	92.64	88.45	4.74%
	위안화	휴장	휴장		원자재	구리	338.65	344.6	-1.73%
	원화	1,412.4	1,402.4	-0.71%		금	1,694.8	1,712.5	-1.03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, 비농업 고용자수 예상 상회, 실업률 하락. 연준의 고강도 금리인상 지속 전망

- 9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자수는 26.3만명 증가해 전월(31.5만명)보다 감소했으나 시장 예상(25.5만명)을 상회해 속도는 완만하나 여전히 견조한 노동시장을 반영. 고용지표 호조로 연준(data-dependent)은 빅스텝 금리인상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
- 최근 신규채용 공고가 감소하는 등 노동수요가 둔화되는 추세였으므로 이번 비농업 고용호조는 아직 경제가 견딜만하다는 신호. 연준의 최종 목표는 타이트한 노동시장 여건 완화를 통해 임금상승률을 낮추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임
- 9월 실업률은 3.5%로 전월(3.7%)에 비해 추가 하락했으며, 예상(3.7%)보다 호조세.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'20년 2월(3.5%) 수준으로 복귀. 9월 시간당 평균 임금(mom)는 0.3%로 예상(0.3%)에 부합하고 전월(0.3%)과 동일
- 고용지표 발표 직후 연준이 고강도 통화긴축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주가 하락, 국채금리 상승, 달러화 강세로 반응
- 대다수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까지 정책금리(FFR)가 4.25%~4.5%를 유지하고 '23년 초 추가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. 정책금리 상단(peak)는 4.5%를 소폭 상회할 가능성. 아울러 위원들은 금융시스템 붕괴 또는 경기가 급랭하지 않는 이상 연준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, 기준금리 4.5%까지 인상 재차 강조

- 10/7일 뉴욕 주립대 간담회에서 기준금리는 역사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며 근시일 내 4.5% 근처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. 금리의 고점과 긴축 속도는 경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, 인플레이션은 내년에 진정될 것으로 전망
-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,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금리인상 중단을 고려하기엔 시기상조.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,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싸움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언급

■ BoE 부총재, 공격적인 통화정책 긴축기조 유지의 필요성 강조

- 데이브 램스든 부총재, 경제적 결과가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 현 통화긴축 경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. 지난달 회의에서 25bp 인상을 주장한 대다수 위원들과 달리 램스든 부총재는 더 큰 폭의 금리인상을 주장
- 트러스 총리의 새로운 재정부양책 발표 이후 나타난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은 통화정책위원회(MPC) 위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향후 통화정책 수립 시 시장의 반응을 참고할 것이며, 보다 명확한 재정 전망도 정책운용에 도움될 것

■ 미국 바이든 행정부, 반도체 장비의 對중국 수출 전면 통제 발표

- 美 상무부, 반도체 자급률을 70%까지 높이겠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YMTC를 포함한 중국 기업 31개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. 특히 AI,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도 제한해 심각한 공급망 차질이 예상

■ 크레딧스위스,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 조기상환 발표

- 재무건전성 위기에 처한 스위스 은행 Credit Suisse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0.7일 약 \$30억(약 4조 2천억원) 규모의 선순위 채권을 조기에 상환(buyback)하기로 결정. 시장에서는 리만브라더스와 같은 위기는 모면할 것으로 평가

■ 노르웨이, 유럽의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 EU와의 협력 강화 약속

- EU와 노르웨이는 양측의 역량 범위 내에서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. 노르웨이는 러시아를 대체해 EU의 최대 가스 공급국으로 부상했으며 10.1일 폴란드로 향하는 새 가스관 '발틱 파이프'가 가동 시작
- EU에서 탈퇴한 영국도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EU와의 협력을 시사하고, 북해 유전의 시추 탐사를 에너지 기업들에게 허가하는 라이선스 보급을 검토하고 있는 중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: 26.3만명, 8월(31.5만명), 예상치(25.5만명)
- 미국 9월 실업률: 3.5%, 8월(3.7%), 예상치(3.7%)
- 미국 8월 도매재고(mom): 전월비 1.3%, 7월(1.3%), 예상치(1.3%)
- 독일 8월 산업생산(mom): 전월비 -0.8%, 7월(0.0%), 예상치(-0.5%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5, E-mail kimhj@kcif.or.kr